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1, Vol. 10, 31-54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김 경 신 · 이 선 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노후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의 실태 및 그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갈등의 점수는 보통보다 다소 낮았지만,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갈등의 영역별로는 남편과 부인 모두 개인적 변인이나 부부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갈등이 보통보다 높았는데, 특히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 대화, 친인척 문제, 사회활동 문제 등의 하위영역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배우자와의 친밀감, IADL, 의사소통효율성, 내적 통제성,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들은 갈등의 30%를 설명하고 있었다. 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 IADL, 내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갈등이 높았는데, 이들은 갈등의 29%를 설명해주었다. 노부부 갈등에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이므로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Key Words: 내적 통제성, 노년기 부부갈등, 의사소통 효율성, IADL]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김경신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kks@chonnam.ac.kr 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71년 남성 59세와 여성 66세, 1981년 남성 62.3세와 여성 70.5세, 1991년 남성 67.7세와 여성 75.9세에서 1997년에는 남성 70.6세와 여성 78.1세로 남녀 모두 70세를 넘어섰다. 노인의 인구 비율도 1960년 2.9%, 1995년 5.9%에서 2000년에는 7.0%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1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60세 이상 노인의 유배우자율도 증가시켜 1985년 9.2%에서 1995년에는 1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2001).

따라서 앞으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보다는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노년기 유배우자율의 증가는 가족생활주기의 빈둥우리기간을 연장시키며, 나 혼자 노후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남은 노후를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노후의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및 건강 수준의 저하, 자녀의 결혼 및 손자녀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사회활동에서의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및 역할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부부간의 관계양상은 노후의 적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따라서 부부간의 협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에서 생활해온 우리나라 노년기 가족의 경우 부부보다는 부자 관계에 우선 순위를 두어왔고, 그만큼 부부관계는 소원하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단위가 점점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족의 중심은 부부관계로 변해갔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년기 부부는 변화의 순응과 전통의 고수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 부부관계, 특히 부부갈등의 문제는 현대에 와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년기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인은 남

노년기 부부갈등

편보다 부부갈등을 더 지각하며 (변화순, 1997; 전길양·임선영, 1998; Amato & Rogers, 1997),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1990; 전길양·임선영, 1998). 소득수준과 갈등의 관계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수입의 저하는 부부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강은령, 1989; 김재경, 1992; 변화순, 1997; 이미영·박혜인, 1995), 소득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 (김재엽, 1998; 김재엽·김동배·최선희, 1998; 전길양·임선영, 1998).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 우선 노인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부부적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신숙, 1997), 남편과 아내의 자아존중감은 모두 건강한 부부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1998). 또 부부관계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이평숙·김행자·한금선, 1998; Myers & Booth, 1999),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 할수록,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1996; 박민자, 1997; 윤영, 1990; 윤현희·김명자, 1994; 이영자, 1999). 역시 노부부가 여가를 함께 보낼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면서 갈등의 소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선, 1991; 김태현·전길양, 1997; 김혜경, 1996; 손승영, 1992; 전길양·임선영, 1998; Anderson & McCulloch, 1993).

지금까지 실시된 노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 개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노년기의 연장과 함께 노인연구의 관점이 개인에서 가족으로 변하면서 근래에는 부부를 상대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llen, Blieszner & Roberto,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최근의 국내연구들도 대부분 남편이나 부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강미선, 1991; 강주령, 1990; 김태현·전길양, 1997; 김혜경, 1996; 전길양·임선영, 1998), 갈등은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양측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파악은 어느 일방이 아닌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Johnson, Amoloza & Booth,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부부관계 변인, 사회적 지지 변인 등이 부부갈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또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변인들을 탐색해봄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갈등을 줄여 노년기 부부가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노년기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도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노년기 부부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노년기 부부갈등은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셋째, 관련변인이 부부갈등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등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론적 배경

노년기의 부부갈등

노년기에 해당된 부부들은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토대로 대부분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 세대들이다. 갈등은 경험할 때마다 그 양상이나 원인이 다양하지만,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자원의 감소,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자원의 감소 등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가 부부관계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변화로 인한 자원의 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감소시켜 부정적 부부관계 즉, 부부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적 사고에 익숙해 있던 노년기 부부에게 현대사회의 남녀평등의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에 대한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부인은 자녀의 지지, 경제력, 그리고 친척, 친구 등 이웃과의 정서적 관계, 신체적 유연성 등 자원의 종류가 다원화되고 양이 많아지므로 부부간의 권력관계는 역전되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협동의 과정에서 마찰이 야기될

노년기 부부갈등

수 있다 (변화순, 1999; 전길양·임선영, 1998).

또한 노년기는 이전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역기능이 전이되면서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Atchley, 1994), 일단 갈등이 발생되면 젊은 세대와 달리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서로 고립된 생활을 지속함으로 부부갈등의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 부부는 오랜 공동생활 동안 갈등을 회피하거나 갈등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노부부의 갈등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등, 1998; 전길양·임선영, 1998). 또한 부부갈등이 어떠한 측면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보는 조사에 따르면, 성격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성문제로 인한 갈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길양·임선영, 1998).

노년기 부부갈등 관련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는 일관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김재엽 등, 1998),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다 (전길양·임선영, 1998; Amato & Rogers, 1997). 또 노년기 부부는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수많은 갈등에 적응하게 되는데, 갈등을 경험했더라도 노인들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는 편이었다 (김재엽, 1998; Straus & Sweet, 1992).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정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김재엽 등, 1998; 전길양·임선영, 1998), 이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 유능성 등과 관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Lazarus & Folkman, 1984). 역시 노년기의 사회활동 정도는 스트레스의 지각과 관련이 높는데, 사회활동을 적게 할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희·김명자, 1994). 그렇지만 재정수입과 갈등의 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가정 내 경

제적 상황이 안정 및 정착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재엽, 1998; 전길양·임선영, 1998).

심리적 변인. 건강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자원의 기본이 되지만, 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지각한 사람일수록 부부간의 갈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전길양·임선영, 1998; Atchley & Miller, 1983).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의 약화와 함께 노년기 부부는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자원의 축소로 인해 수동성을 보이며 부양과 애착을 더욱 필요로 하면서 성역할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특히 남편에게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노년기 부부간에는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부부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김자혜, 1997; 변화순, 1999). 또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부 각자의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경희, 1998; 조유리, 2000), 부부관계에 대한 내적 통제성 수준은 노년기 부부로 하여금 변화된 결혼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성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숙 등, 1998; Myers & Booth, 1999).

부부관계 변인. 부부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은 정서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촉진시켜주는 요소이므로 부부만족과 직결된다 (김경신·박은주, 1996). 즉 노부부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김혜경, 1996; 윤영, 1990),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관계에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 노부부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의한 생활로 인해 의사결정에서 남편의 주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에 노부부의 의사결정양상과 부부갈등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신화용·조병은, 1999), 생활 및 가치관의 변화는 남편우위의 권력양상에 대한 제지를 가하며 변화하고 있어 의사결정과 부부갈등간의 관계에 대한 재분석이 요구된다 (김재엽, 1998; 박민자, 1997; 손승영, 1997; Straus & Coleman, 1990). 역시 노년기의 여가시간 증가도 그

노년기 부부갈등

활용 양상에 변화를 보여 노부부의 여가공유도가 부부관계에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했는데, 여가공유도가 높을수록 갈등 소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전길양, 1997; 전길양·임선영, 1998).

사회적 지지 변인. 노년기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결혼생활에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용·조병은, 1999; Anderson & McCulloch, 1993). 또 가족중심으로 생활범위가 축소된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관계는 생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녀와의 낮은 접촉빈도는 부부간의 적응과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노부부의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부인 모두 60세 이상인 218쌍의 부부($n = 436$)였다. 그들의 연령분포는 남녀 모두 60~65세가 가장 많아 남편 44.5%와 부인 66.5%이었고, 60~70세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30.3%와 23.9%, 71세 이상에서는 각각 25.2%와 9.6%이었다. 교육수준은 부부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았는데, 남편 27.5%와 부인 39.0%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종교를 믿고 있다는 비율은 남편 54.1%와 부인 76.6%인 반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편 59.2%와 부인 38.5%이었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로는 남편 49.1%와 부인 51.4%가 보통수준으로 인지하였고, 또 남편의 36.7%가 건강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부인의 30.3%는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확대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으며, 평균 수입은 매월 51~80만원이 19.7%, 21~50만원이 16.1%, 81~110만원이 14.7%, 201만원 이상이 11.5%, 그리고 20만원 이하는 8.7% 정도였다. 그 외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의 일반적 경향과 그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남편과 부인에게 적합한 질문지를 각각 작성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전문인의 안면타당도로 일차 검증을 했으며, 신뢰도는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로 제시하였다. 질문지에 수록된 여러 척도들은 단일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Likert식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것들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노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종교, 수입, 직업, 가족형태, 사회활동정도,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등을 조사했는데, IADL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모두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IADL은 물건구입, 집안일, 전화사용, 약 먹기, 세탁, 식사준비, 대중교통 이용, 재정관리 등 8가지 활동의 수행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었는데 (Lawton & Brody, 1969),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계수는 .87이었다.

심리적 변인. 노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내적 통제성 등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성역할태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종희, 1983),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 태도를 의미하며 또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81이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 중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좋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노년기 부부갈등

또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73이었다.

내적 통제성 척도는 Myers와 Booth(1999)의 MLC(Marital Locus of Control)를 이용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Myers와 Booth(1999)의 MLC는 부부관계에 대한 내적 및 외적 통제성 척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과 관련된 문항만을 선택하여 수정한 것들을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내적 통제성이란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통제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혼의 행복이나 성공은 외부의 힘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정도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내적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67이었다.

부부관계 변인. 부부관계 변인으로는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 친밀감, 의사결정 공유도, 여가 공유도 등이 사용되었다. 먼저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Bienvenu, 1970)를 기초로 하여 4문항(‘배우자의 얘기는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다’, ‘배우자는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배우자에게 나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다’)으로 측정했는데,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73이었다. 친밀감은 Townsend와 Franks(1997)의 부부간 친밀감 척도 중에서 4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했는데,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85였다.

의사결정 공유도란 가정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남편과 부인이 얼마나 공동으로 수행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가능한 의사결정영역을 고가품 지출, 일상생활비 지출, 자녀의 문제, 사회활동의 문제, 친인척과 관련된 일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공유도를 파악하였다. 문항들의 점수는 ‘전적으로 남편’이나 ‘전적으로 부인’에 1점, ‘주로 남편’이나 ‘주로 부인’에 2점, 그리고 ‘부부 공동’에 3점으로 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공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는 .62였다. 여가 공유도는 강미선(1991)과 김혜경(1996)을 기초로 하여 여가 활동의 영역을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지 또는 부부 각자 여가활동을 하

는지를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유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는 .70이었다.

가족 지지 변인 가족 지지 변인은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Anderson과 McCulloch(1993)가 노부부의 상호지지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는 .82였다. 자녀 지지는 강주령(1990)을 기초로 자녀와의 왕래정도, 물심양면의 지원정도, 자녀와의 관계 등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는 .76이었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s(1989)의 부부관계유형을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척도를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반응범위는 ‘매우 그렇다(= 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들간의 내적일치도는 .84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 및 면접실시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면접자가 구조화된 질문지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면서 수집하였다. 또 자료수집은 노인부부가 거주하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부부 각각에게 직접 면접을 한 후 그 내용을 질문지에 기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0년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노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11월에 본 조사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면접 대상부부는 225쌍이었으나,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60세 미만이거나 여러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던 7쌍을 제외한 218쌍($n = 436$)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노년기 부부갈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남 편	부 인
		N(%)	N(%)
연 령	60세-65세	97(44.5)	145(66.5)
	66세-70세	66(30.3)	52(23.9)
	71세 이상	55(25.2)	21(9.6)
교육수준	무학	10(4.6)	38(17.4)
	서당	19(8.7)	6(2.8)
	초등학교졸	60(27.5)	85(39.0)
	중졸	35(16.1)	49(22.5)
	고졸	55(25.2)	32(14.7)
	대졸 이상	39(17.9)	8(3.7)
종 교	없음	101(45.9)	51(23.4)
	있음	117(54.1)	167(76.6)
직업	무	89(40.8)	134(61.5)
	유	129(59.2)	84(38.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31(14.2)	66(30.3)
	보통	107(49.1)	112(51.4)
	건강함	80(36.7)	40(18.3)
수입	50만원 이하	54(24.8)	
	51-80만원	43(19.7)	
	81-110만원	32(14.7)	
	111-140만원	24(11.0)	
	141-170만원	22(10.1)	
	171-200만원	18(8.3)	
	201만원 이상	25(11.5)	
가족형태	핵가족	175(80.3)	
	확대가족	43(19.7)	

결 과

노년기 부부갈등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

노년기 부부갈등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부부갈등의 전체점수는 남편 2.68과 부인 2.82로 부부 모두 중간점수(3점)보다 약간 낮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년기 부부 갈등에

대한 대다수 연구들과 일치한다 (김재엽 등, 1998; 변화순, 1997; 전길양 · 임선영, 1998; Amato & Rogers, 1997). 각 영역별로는 부부 모두 성격, 가치관, 건강, 관심이나 애정 표현의 부족 등 개인적 변인 및 부부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갈등이 중간점수보다 높았지만, 금전관리, 가사노동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영역, 자녀나 손자녀의 문제, 사회활동 등 제삼자와 관련된 갈등의 정도는 중간점수보다 낮았다.

노년기 부부는 다양한 갈등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오랜 세월을 통해 서로에게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기에 부부갈등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동생활영역이나 제삼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서로에게 잘 적응해서인지 별다른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부부관계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영역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 중에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부부 모두 건강이었는데, 노후의 신체적 자원의 약화는 부부갈등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의 부족에 대한 부부갈등은 남편 3.22와 부인 3.27로 모두 중간점수보다 높은 편이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도하에서 생활해온 노부부에게 자신들만의 생활을 유지한다거나 애정표현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사회정서상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부부 모두 배우자의 관심이나 애정 표현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년기에도 애정 및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년기 역시 애정 표현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 부부갈등의 부부간 차이를 전체점수로 살펴보면, 남편보다 부인이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각 영역별로는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 대화, 친인척의 문제, 사회활동에의 문제 등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부부갈등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습관 영역은 남편 2.45와 부인 3.25로 부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p < .001$), 성격도 남편 3.16과 부인 3.3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p < .001$). 대화 문제는 갈등점수 자체는 낮지만 부부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치관, 친인척의 문제, 사회활동으로 인한 부부갈등의 경우도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게 인지하고

노년기 부부갈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편보다 부인의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노년기 부인들의 억압적인 삶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부장적 체제하에서 생활해온 지금의 노년기 부부에게 있어 기존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남편은 기존의 권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부부갈등의 정도가 낮으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던 부인의 경우 현대의 급변하는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을 자연히 갖게 되었고, 이것이 부부갈등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변인에 따른 부부갈등

<표 2> 노년기 부부갈등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 차이

갈 등 영 역	남 편	부 인	paired-t
	M(SD)	M(SD)	
성격	3.16(0.83)	3.33(0.83)	-3.84***
가치관	3.14(0.88)	3.27(0.85)	-2.04*
건강	3.50(1.04)	3.61(0.94)	-1.43
생활습관(술,담배 등)	2.45(1.24)	3.25(1.26)	-7.82***
대화	2.68(0.80)	2.83(0.86)	-2.79**
성생활	2.94(0.80)	2.89(0.75)	0.90
관심이나 애정표현	3.22(0.85)	3.27(0.90)	-0.59
이성과의 관계	2.46(0.94)	2.62(1.08)	-1.94
금전관리, 소비	2.69(1.04)	2.78(1.10)	-1.16
가사노동	2.43(1.08)	2.47(1.04)	-0.57
주거, 주택	2.41(1.06)	2.46(1.08)	-0.67
여가활동	2.31(1.05)	2.41(1.04)	-1.63
친인척	2.59(1.04)	2.73(1.04)	-2.03*
자녀나 손자녀 문제	2.42(0.97)	2.47(0.99)	-0.74
사회활동	2.22(1.02)	2.39(1.08)	-2.36*
직업, 부업	2.30(1.12)	2.33(1.09)	-0.51
전 체	2.68(0.54)	2.82(0.54)	-4.72***

* $p < .05$

** $p < .01$

*** $p < .001$

부부갈등의 관련변인들 중 변인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만 표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남편은 교육수준, IADL, 사회활동의 정도에서, 부인은 IADL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 갈등이 더 심하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과 부인 모두 IADL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은령(1989), 김재엽 등(1998), 변화순(1997), 전길양·임선영(1998) 등과 일치하는데, 교육수준이나 소득은 개인의 기본적인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 갈등과 관련이 클 수 있다.

특히 사회활동의 정도는 남편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경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편들이 은퇴이후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나 신체적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노인의 행복감은 사회활동을 통해 증대되므로 (윤현희·김명자, 1994), 사회활동은 남성노인의 부부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사회활동상의 큰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심리적 변인, 부부관계 변인, 가족지지 변인의 경우 남편은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부관계 내적 통제성, 의사소통 효율성, 친밀감, 의사결정 공유도,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등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부간 갈등을 낮게 지각했으며, 성역할 태도가 중간인 집단, 부부관계 내적통제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했다. 친밀감이나 의사결정 공유도, 그리고 배우자 지지가 낮은 집단은 부부갈등이 높았던 반면, 자녀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부관계 내적 통제성, 의사소통 효율성, 친밀감, 의사결정 공유도, 부부지지 등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인이 그렇지 않은 부인보다 부부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적인 성역할 태도가 중간정도이거나 또 자아존중감이나 내적 통제성, 의사소통 효율성, 친밀감 등이 낮은 집단

노년기 부부갈등

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의사결정 공유도가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배우자 지지가 낮은 집단이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부부는 건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자신감을 가질 때, 부부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할 때,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 때 부부갈등이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혜경, 1996; 윤영, 1990; 전길양·임선영, 1998)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개념을 갖도록 고취하며, 평등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인 태도와 전통적 태도의 중간 입장인 경우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태도에서 근대적 태도로의 과도기적 입장에서 노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이 부부갈등으로 연결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 부부갈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

관련변인이 노년기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및 DW(Durbin 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VIF계수는 남편, 부인 모두 1점 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남편이 1.92, 부인 2.13으로 잔차들간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관련변인이 부부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 <표 4>와 같다. 남편의 부부갈등은 친밀감, IADL, 의사소통 효율성, 내적 통제성, 교육수준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감, IADL, 의사소통효율성, 내적 통제성,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전체변량의 약30%를 설명하고 있었다. 부인의 부부갈등은 의사소통 효율성, IADL, 내적 통제성 변인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부부갈등의 정도

			남편				부인			
			<i>N</i>	<i>M</i>	<i>F</i>	D	<i>N</i>	<i>M</i>	<i>F</i>	D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육 수준	무학	10	2.90		A	38	2.97		A
		초졸이하	79	2.81		A	91	2.78		AB
		중졸	35	2.64	3.38*	AB	49	2.86	1.55	AB
		고졸	55	2.65		AB	32	2.74		AB
		대졸이상	39	2.46		B	8	2.58		B
	IADL	낮다	34	2.87		A	30	2.99		A
		보통	53	2.75	3.92*	AB	150	2.84	5.27**	A
		높다	131	2.61		B	36	2.59		B
	사회활동 의 정도	없다	28	2.92		A	24	2.84		A
		1-2개	103	2.67		B	126	2.88		A
		3-4개	62	2.67	2.69*	B	49	2.70	1.52	A
		5개 이상	25	2.51		B	19	2.71		A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나쁨	31	2.80		A	66	2.99		A
		보통	107	2.68	1.01	A	112	2.77	5.65**	B
		건강함	80	2.63		A	40	2.68		B
심리적 변인	자아 존중감	낮다	24	2.68		A	27	3.04		A
		보통	173	2.72	3.61*	A	150	2.83	5.37**	AB
		높다	21	2.39		B	41	2.62		B
	성역할 태도	전통적	42	2.55		B	36	2.73		A
		중간	139	2.78	7.12***	A	116	2.91	3.59*	A
		근대적	37	2.46		B	66	2.71		A
	내적 통제성	낮다	24	3.02		A	26	3.32		A
		보통	163	2.72	20.12***	B	163	2.79	18.90***	B
		높다	31	2.21		C	29	2.50		C
부부관계 변인	의사소통 효율성	낮다	42	2.91		A	34	3.21		A
		보통	99	2.82	22.65***	A	162	2.82	27.25***	B
		높다	77	2.38		B	22	2.23		C
	친밀감	낮다	37	3.05		A	34	3.18		A
		보통	149	2.67	19.92***	B	163	2.78	12.02***	B
		높다	32	2.30		C	21	2.52		C
	의사결정 공유도	낮다	37	2.88		A	38	3.00		A
		보통	157	2.67	4.76**	AB	153	2.82	6.00**	A
		높다	24	2.45		B	27	2.54		B
가족지 변인	배우자 지지	낮다	32	3.02		A	38	3.14		A
		보통	153	2.67	11.96***	B	142	2.78	9.15***	B
		높다	33	2.40		C	38	2.66		B
	자녀 지지	낮다	28	2.93		A	30	2.99		A
		보통	161	2.70	10.17***	A	149	2.80	1.89	AB
		높다	29	2.33		B	39	2.75		B

* $p < .05$ ** $p < .01$ *** $p < .001$ D는 Duncan검증 결과임

노년기 부부갈등

효율성, IADL, 내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인들은 부인의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노년기 부부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의사소통 효율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친밀감도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에 있어 부부관련변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내적 통제성도 부부관계에 대한 내적 통제성을 측정할 척도임을 고려하면 부부관계가 노년기 부부갈등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 노년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건강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 IADL이 부부 모두에게서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노후의 건강과 부부관계는 부부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며 해결책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는 사회활동이나 직업에서의 은퇴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고정화되고 있음을 볼 때,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남편의 부부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부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중재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부부갈등을 적절히 대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4> 노년기 부부갈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

남 편			부 인		
변 인	b	β	변 인	b	β
친밀감	-.15	-.19*	의사소통효율성	-.30	-.39***
IADL	-.11	-.16**	IADL	-.12	-.18***
의사소통효율성	-.19	-.23**	내적 통제성	-.14	-.16*
내적 통제성	-.15	-.16*			
교육수준	-.04	-.12*			
	$R^2 = .30$			$R^2 = .29$	
	$F = 19.66***$			$F = 30.57***$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노년기 부부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노후의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남편 부인 모두 60세가 넘는 노년기 부부를 한 쌍으로 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전체점수는 남편과 부인 모두 중간점수(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성격, 가치관, 건강, 관심이나 애정표현의 부족 등 개인관련 영역 및 부부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부부간 갈등이 중간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금전관리, 가사노동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영역, 자녀나 손자녀의 문제, 사회활동 등 제삼자와 관련된 부부갈등 정도는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부간 차이를 살펴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영역별로는 성격,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대화, 친인척의 문제, 사회활동에의 문제 등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부부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부부갈등은 노인 개인과 관련된 영역이나 부부관계와 관련된 영역과 상당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의 변화와 부부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년기 부부는 가치관과 실생활간의 차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 특히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남녀 평등적 가치관을 수용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활동능력이 떨어지고 수동성이 증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보면,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노년기 부부의 부부갈등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노년기 부부갈등

변인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교육수준, IADL, 사회활동 정도,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부부관계 내적 통제성, 의사소통 효율성, 친밀감, 의사결정 공유도,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등이었고, 부인의 경우는 IADL,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부부관계 내적 통제성, 의사소통 효율성, 친밀감, 의사결정 공유도, 부부 지지 등이었다. 관련변인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자원, 개인의 심리적 자원, 부부관계 자원, 가족지지 자원의 수준이 높을 때 갈등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원 확보와 함께 관계적, 심리적 자원의 보충을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의 부부갈등은 친밀감, IADL, 의사소통 효율성, 내적 통제성,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전체변량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부인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 IADL, 내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전체변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부부의 갈등에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과 관련된 여러 영역 중 대화부문에서 부부 모두 높은 갈등수준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며, 노년기 부부갈등에 있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김자혜, 1997; 변화순, 1999; 신화용·조병은, 1999; 이경희, 1998; Anderson & McCulloch, 1993)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던 자아존중감이나 성역할 태도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이나 지지변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예; 김순옥, 2001; 송정아, 1996; 오윤자, 1994),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부부는 다른 가족주기상의 부부보다

부부유별이나 남존여비 등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생활해 왔고,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으며, 또 가족주기 마지막 단계라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IADL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부부갈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육하는 등의 다차원적인 노력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노부부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고, 70대 이상 노인들의 비율이 낮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전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때, 가족주기 전반에 걸친 부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 부부갈등에 자세한 파악을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만이 경험하는 갈등영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미선(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주령 (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박은주 (1996). 효율적인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정과학연구*, 6, 111-122.

노년기 부부갈등

- 김순옥 (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 (1), 137-157.
- 김자혜 (1997). 노부부 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93-324).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재경 (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18 (1), 170-183.
- 김재엽 · 김동배 · 최선희 (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 (3), 103-122.
- 김태현 ·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 (2), 167-182.
- 김혜경 (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자 (1997).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71-109),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박은숙 · 김순자 · 김소인 · 전영자 · 이평숙 · 김행자 · 한금선 (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 건강관리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 (3), 37-61.
- 변화순 (1997).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17-253).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변화순 (1999). 노인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pp. 33-70).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손승영 (1992). *성인자녀와의 동거에 따른 노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제3차 심포지움 자료집 (pp. 41-49).
- 손승영 (1997).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255-292),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송정아 (1996).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 205-218.
- 신화용 · 조병은 (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 (1), 31-44.

- 오운자 (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 (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희 · 김명자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 (1), 17-32.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 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 (1), 141-154.
-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 (2), 70-85.
- 이영자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길양 · 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 (6), 1-12.
- 정종희 (1983).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Allen, K., Blieszner, R., & Roberto, K.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11-926.
- Amato, P., & Rogers, S.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12-624.
- Anderson, T., & McCulloch, B. (1993). Conjugal support: Factor structure for older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Gerontology* 48, S133-S142.
- Atchley, R., & Miller, S. (1983).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 Beverly Hills, CA: Sage.
- Bienvenu, M., Sr.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 26-31.
- Johnson, D., Amoloza T., & Booth, A. (1992). Stability and developmental change in marital quality: A three-wave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82-594.
- Lawton, M., & Brody, E. (1969). Assessment of older people: Self-maintain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Gerontologist*, 9, 179-186.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rks, N. (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17-932.
- Myers S., & Booth, A. (1999). Marital strains and marital quality: The role of high and low locus of contro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23-43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raus, M., & Coleman, D.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traus, M., & Sweet, S. (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46-357.
- Townsend, A., & Franks, M. (1997).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pouses: Influence on spouse caregivers' subjective effectiveness. *Family Relations*, 46, 33-39.

Marital conflict and related variables in old aged couples

Kyeong-Shin, Kim · Seon-mi, Lee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57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elderly couples' marital conflic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on their marital conflict. The participants were the 218 couples over 60 years old living in Kwangju area. The marital conflict scores of both husbands and wives were lower than median, but wives' scores were higher than husbands' scores. Husbands' marital conflict was influenced by marital intimacy, IADL, communication efficacy, locus of control, education level, and was explained about 30% by these variables, while wives' conflict was influenced by communication efficacy, IADL, locus of control, and was explained about 29% by these variables. Communication efficacy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old aged couples' marital conflict, and thus family life education for increasing the communication efficacy was proposed.

(논문접수일: 2001년 10월 16일)

(수정논문접수일: 2001년 11월 5일)

(논문게재승인일: 2001년 11월 10일)